

아프리카 시학의 장소 상실에 나타나는 본질적 정체성*

— 하리 가루바의 『정령의 노래』를 중심으로

배 옥 주**

차 례

- | | |
|----------------------------------|--------------------|
| 1. 서론 | 1) 근원적 생명의 이름 |
| 2. 아프리카 문학 언어의 정체성 | 2) 뿌리 뽑힌 정령의 표상 공간 |
| 3. 하리 가루바의 『정령의 노래』에서
발현되는 장소 | 4. 결론 |

국문초록

이 연구는 나이지리아 대표 시인 하리 가루바(1958~2020, Harry Garuba)의 시집 『정령의 노래(Animist Chants and Memorials)』를 중심으로 ‘장소 상실’의 양상에 주목하여 시적 정체성의 동인을 고찰하는 데 목적을 둔다. 아프리카인들에게 ‘온화한 거인’으로 기억되는 가루바 시학에서 장소 상실은 이산문학의 중심에 선 비서구 시학의 포스트콜로니얼리즘(postcolonialism)과 긴밀히 맞닿아 있다. 그의 시학에는 식민주의에

* 이 논문은 2024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4S1A5A8023513116178206434101).

** 부경대학교 연구교수

의해 빼앗긴 아프리카를 찾아가는 장소 상실의 여정이 고스란히 담겨있으며, 식민 권력에 저항하는 장소 상실이나 무장소성의 정체성을 표출한다. 가루바가 영어로 창작한 시는 제국주의에 희생된 영혼을 깨우는 해방의 노래로 거듭난다. 그의 시학에서는 아프리카 대륙의 구술성이 갖는 구연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장소 상실의 체험을 드러낸다. ‘장소 없는 삶’이나 ‘삶이 없는 장소’라는 역설적 상황에서 실존의 부조리를 경험한 가루바는 식민의 부당한 환경을 은유의 미학으로 승화시킨다. 따라서 가루바 시학에 나타난 장소 상실 연구는 단순히 상실의 체험 기록에 그치지 않고, 아프리카 본질적 정체성의 동인을 규명하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본 연구는 그가 구축한 구연적 상상력의 시적 언어와 장소 상실의 미학을 통해 아프리카 시학의 정체성을 심층적으로 조명하고자 한다.

주제어: 하리 가루바, 정령의 노래, 포스트콜로니얼리즘, 정체성, 장소 상실

I. 서론

제3세계는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 등을 포함한 경제학의 빈곤국 전체를 말한다. 서구의 타자로 취급되는 비서구 지역은 전쟁과 지역 분쟁, 가난 등을 경험한 장소다. 식민주의는 동시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역사화된 텍스트로 각인되어 있다. 식민 통치로 인해 비서구 문학은 서구 중심의 세계문학에서 철저히 소외되고 배제되어 왔다. 근래 들어 세계 문학장은 서구 중심주의를 벗어나 비서구 문학과 공존 가능성을 보여주는 긍정적 변화의 흐름 속에 놓여 있다.¹⁾

1) 1970년 중반부터 제3세계 시문학이 번역되기 시작했으며, 『오늘의 시인 총서(민음사)』, 『창비시선(창작과비평사)』, 『문학과지성 시인선(문학과지성사)』 등의 출

본 연구는 나이지리아 시인 하리 가루바의 『정령의 노래(Animist Chants and Memorials)』²⁾를 중심으로 장소 상실에서 드러나는 아프리카의 본질적 정체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가루바는 1958년 나이지리아 남서부 아쿠레에서 출생했으며, 1998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이주하여 2020년 백혈병으로 사망하기까지 활발한 문학 활동을 이어갔다. 그는 1982년 첫 시집 『그림자와 꿈 그리고 다른 시들』을 발표한 이후, 35년 만인 2017년 두 번째 시집이자 마지막 시집인 『정령의 노래(2017)』를 출간했다. 가루바 시학은 정령을 깨우는 주문이다.³⁾ 『정령의 노래』는 아프리카 정령과 무수한 영혼을 불러내 사물에 담긴 정령의 목소리를 들려준다. 그가 영어로 쓰는 노래는 아프리카 대륙의 구술성이 갖는 구연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제국주의에 희생된 영혼을 위로하고 해방을 노래한다.

인간에게 가장 내적인 장소는 자아와 밀접하게 연결된다. 장소를 상실한다는 것은 삶의 기반이 무너지는 경험과도 같다. 특히 식민의 역사를 체득한 비서구 문학에서 드러나는 ‘장소성’은 시인의 내적 세계와 실존적 경험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 비서구 식민지인들은 서구 지배자에게 열등한 타자의 자리를 강요받았으며, 이들은 자의든 타의든 장소 상실을 통해 실존적 부조리를 경험했다. 장소성에 대한 문학적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으나, 비서구 문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데 비해 비서구 시학의 장소성 연구는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왔다.

선행 연구를 살펴본 결과 고인환이 번역한 『정령의 노래』에 첨부된 해설을 제외하면 가루바⁴⁾ 시학에 대한 학술 연구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간은 비서구 문학의 소개와 확산에 기여했다.

2) 하리 가루바(Harry Garuba), 고인환 역, 『정령의 노래』, 아프리카, 2021.

3) 위의 책, 115쪽.

4) 가루바는 아프리카 디아스포라 서사와 공연예술의 역사와 형식을 연구했으며, 아프리카 문학을 서구 이론만으로 해석하는 관행에서 벗어나기 위해 물질론적 유물론(animist materialism)을 탐구했다. 그는 아프리카 고유의 정신세계와 존재론을 바탕으로 이론을 정립하려 했다.

다. 비서구 시학의 장소성 연구는 가루바의 시 세계에서 형상화되는 장소의 성격과 지향, 그리고 부정성의 양상을 입체적으로 해석하는 데 의미가 있다. 따라서 가루바 시학 연구는 비서구 시학의 장소성을 탐구하는 데 필수적이다. 장소성 개념은 아프리카 시학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반을 제공한다. 사람은 자신이 속한 장소의 산물이며, 장소 또한 그 안에 사는 사람으로 인해 의미를 형성한다.⁵⁾ 경험을 통해 의미가 축적된 개별 장소는 사유의 대상이 되고, 친밀한 장소를 빼앗기거나 잃어버릴 때 인간은 정체성의 위기에 직면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장소 상실’ 개념은 에드워드 렐프(Edward Relph)가 말한 근대화와 세계화에 따른 ‘무장소성(placelessness)’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렐프의 무장소성은 후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공간 압축, 표준화된 경관의 확산, 장소의 진정성(authenticity) 상실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반면 가루바의 시에 나타나는 장소 상실은 식민 지배에 의한 ‘강제적 장소 박탈(colonial dispossession)’과 ‘공간의 폭력적 재편’을 의미한다. 이는 앙리 르페브르(Henri Lefebvre)가 말한 ‘공간의 생산(The Production of Space)’ 개념, 즉 권력이 공간을 통제하고 재구성하는 과정과 연결된다. 식민 권력은 아프리카의 장소를 단순히 점유한 것이 아니라, 장소의 의미와 정체성을 폭력적으로 재편함으로써 원주민의 존재론적 기반을 해체했기 때문이다.

아프리카를 비롯한 제3세계에서 포스트콜로니얼은 과거 식민 세력으로 부터 존재론적·인식론적 해방을 의미한다. 탈식민화는 포스트콜로니얼의 핵심이자 존재 이유다.⁶⁾ 장소가 뿌리 뽑히는 무장소성은 정신의 뿌리까지 흔든다. 식민 통치하의 시인들은 ‘고향’, ‘조국’, ‘집’ 같은 근원적 장소에서의 상실을 강한 저항성으로 표출했다. 아프리카 시인들은 식

5) 오토 프리드리히 볼노(Otto Friedrich Bollnow), 이기숙 역, 『인간과 공간』, 예코리브르, 2011, 17쪽.

6) 이석호, 『아프리카 문학과 탈식민주의 그리고 몇 가지 단상들』, 『문학들』 25, 문학들, 2011.가을, 346쪽.

민 통치에서 절망과 고통의 비극을 겪었고 돌아갈 수 없게 된 뿌리의 장소를 이상화하는 경향을 보인다.

나이지리아의 하리 가루바(1958~2020), 콩고의 치카야 우 탐시(Chikaya U Tamsi: 1931~1988), 니이 오순다레(Niyi Osundare: 1947~), 가나의 코피 아나도호(Kofi Awoonor: 1947~),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다이아나 퍼러스(Diana Ferrus: 1953~), 세네갈의 데이비드 디오프(David Diop: 1927~1960) 등은 아프리카 저항시의 대표적인 시인들이다. 시인이 경험한 장소성은 시적 주체의 내면 사유와 결합되어 있다. 본 연구의 핵심 전제인 진정한 장소감을 상실한 시인들은 되찾고자 하는 장소에 대한 강한 열망과 저항성을 형성한다. 가루바의 시에서 나타나는 ‘장소’는 아프리카 문화적 정체성의 핵심으로 작동한다. 따라서 그의 시적 표상 공간에서 드러나는 장소 상실을 고찰하는 일은 아프리카 정체성의 본질을 규명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가루바 시학은 장소 상실의 체험을 공동체적 구술성과 결합시킨다. 그의 시는 언어의 운율성과 음악적 구술성이 두드러진다. 공동체가 공유하는 구술 전통이 시인을 이야기꾼으로, 청중을 참여자로 만든다. 자연과 조상을 숭배하는 공동체적 삶의 철학 또한 구술성과 음악적 서사에 깊게 반영되어 있다. 이는 식민주의와 탈식민주의 경험을 표현하는 중요한 기반이다. 『정령의 노래』에서 표출되는 구연적 상상력과 구술성은 장소 상실과 무장소성에 저항하며 아프리카 문학의 본질적 정체성을 형상화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본 논문은 『정령의 노래』를 중심으로 아프리카의 본질적 정체성 회복을 선도해 온 가루바 시학의 장소 상실에 주목한다. 첫째, 『정령의 노래』는 정령과 영혼을 깨우는 주문으로 아프리카 디아스포라 시학의 여정을 담고 있다. 둘째, 이 시집은 아프리카 구술문화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영매적 힘을 표출한다. 셋째, 장소 상실을 경험한 식민지 아프리카의 포스트콜로니얼리즘을 극복하려는 영성의 탐구가 내재되어 있다. 본 연구

는 대상 시집에 나타나는 ‘숲’, ‘피의 해변’, ‘무덤’, ‘골목’, ‘혀의 집’ 등의 장소성을 중심으로 장소 상실의 이미지가 혹은 정체성과 아프리카의 본질적 정체성을 어떻게 드러내는지 고찰할 것이다.

본고는 에드워드 렐프의 『장소와 장소 상실(Place and Placelessness)』의 개념을 비판적으로 원용하되, 앙리 르페브르의 『공간의 생산(The Production of Space)』을 주요 이론적 틀로 삼는다. 또한 가스통 바슐라르의 『공간의 시학(The Poetics of Space)』, 오토 프리드리히 볼노의 『인간과 공간(Human Space)』, 이-푸 투안의 『공간과 장소(Space and Place)』 및 『토포필리아』 등 현대 장소 이론을 함께 원용하여 식민 지배로 인한 장소 상실과 공간의 식민화 현상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가루바의 시가 단순히 장소를 상실한 것이 아니라, 제국주의에 의해 장소를 박탈당하고 폭력적으로 재편 당한 경험을 어떻게 형상화하는지 밝히고자 한다.

2. 아프리카 문학 언어의 정체성

아프리카 문학은 식민 지배의 역사 속에서 2000개 이상의 토속 언어를 가진 다양한 부족과 민족의 다언어성 속에서 발전해 왔다.⁷⁾ 아프리카 문학은 토착어뿐 아니라 영어, 프랑스어, 포르투갈어 등 제국의 언어를 함께 사용하는 독특한 언어적 지형을 지닌다. 세계에서 영어로 창작하는 나라가 54개국에 달하며, 그중 절반이 아프리카에 속한다는 사실은 이를 뒷받침한다.⁸⁾ 남아공에서는 1994년 이후 영어와 아프리칸스어를

7) 허혜정, 『한국 현대문학과 아프리카 문학에 대한 인식 공간』, 『동서비교문학저널』 20, 한국동서비교문학학회, 2009, 287쪽.

8) 이석호, 『영어권 아프리카 작가들의 문학(사) 다시 쓰기와 언어논쟁의 관계-치누아 아체베와 웅구기와 씨웅오를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 50(50), 한민족문화학회, 2015, 477쪽.

포함하여 11개의 공식어가 채택되어 사용되었다. 그래서 생의 절반을 시인과 연구자로 살아온 가루바에게 필연적인 영어 사용은 한결 용이한 환경에서 이루어졌다.

아프리카 언어가 안고 있는 문제는 영어나 아프리칸스어에 비해 현대화를 담아낼 수 있는 어휘가 절대 부족하다는 점이다.⁹⁾ 남아공은 언어 정책을 통해 국가를 통합하고 영어와 아프리칸스어 외에 9개의 아프리카어를 국가 공식어로 제정하여 국민 간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고자 했다.¹⁰⁾ 사회적 현실에서 아프리칸스어의 영향력도 존재했지만, 도시화와 교육, 행정적 조건으로 인해 영어는 명실공히 제1의 언어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었다.¹¹⁾

결과적으로 가루바에게 영어 사용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현실적 필요성과 아프리카적 정체성 구현 사이의 전략적 도구였다. 그의 시는 영어를 매개로 제국주의적 속성을 전복하고 아프리카적 상상력과 해방 정신을 구현한다. 이러한 언어 사용은 남아공에서의 정착 경험과 함께 장소 상실을 체험적으로 형상화하는 기반이 되며 『정령의 노래』 전반에 걸쳐 아프리카 공동체의 영성과 정체성을 드러낸다.

아프리카 문학은 제국의 언어를 되받아 쓰는 ‘칼리반 증후군(Caliban Syndrome)’과 영어를 아프리카화하여 소통이 가능한 언어로 조정하는 ‘아체베 증후군(Achebe Syndrome)’으로 설명된다. 칼리반 증후군은 셰익스피어의 『템페스트』의 칼리반처럼 지배자의 언어를 배워 저항하는 방식을 의미하며, 아체베 증후군은 치누아 아체베처럼 영어를 아프리카의 목소리를 담는 언어로 전유하는 전략을 일컫는다. 치누아 아체베와 옹구기¹²⁾ 와 티웅고 등 주요 작가들은 영어로 창작을 시작했으며, 가루

9) 장용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언어정책과 국가통합』, 『아프리카연구』 19, 한국의국어대학교 아프리카연구소, 2005, 117쪽.

10) 위의 논문, 112쪽.

11) 위의 논문, 103-104쪽.

12) 치누아 아체베는 영어로 작품을 창작하는 것이 아프리카 대륙에서 솟아오르는

바 역시 여기에 속한다.¹³⁾ 이들이 영어를 선택한 이유는 식민지 경험과 독자층을 고려한 전략적 판단이었다.

가루바 또한 아프리카적 미학을 창조하는 실질적 도구가 ‘영어’임을 인식하고 영어로 창작했다. 그의 영어 사용은 제국 언어의 속성을 전복하는 동시에 서구 근대성을 넘어서는 문학적 장치로 기능한다.¹⁴⁾ 그는 읽히지 않는 문학은 효용성을 발휘할 수 없다고 보았으며, 영어로 쓰인 그의 시는 제국주의에 희생된 영혼을 구제하려는 해방의 노래로 작동한다. 이는 아프리카적 상상력을 구현하는 문학으로 거듭나며, 그가 나이제리아의 뛰어난 시인으로 평가받는 이유다.

3. 하리 가루바의 『정령의 노래』에서 발견되는 장소 상실

가루바는 1998년 나이지리아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이주하여 2020년 백혈병으로 사망하기까지 케이프타운 대학교에서 연구 활동을 이어갔다. 그에게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의 이주는 단순한 지리적 이동이 아니라 새로운 장소 상실의 경험이었다. 나이지리아를 떠나면서 겪은 고향 상실과 남아공에서의 정착 과정은 그의 시세계에 깊은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정령의 노래』에서 더욱 심화된 장소 상실의 주제로 나타난다. 본

새로운 목소리를 세계적 언어로 전달하는 방식이라 주장했다. 그는 영어가 제국의 언어라 해도 아프리카식으로 전유할 수 있다면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옹구기는 초기에는 영어로 작품을 썼으나, 이후 모국어인 키쿠유어로 전환하여 언어적 정체성을 회복하고자 했다. 이들에게 영어는 식민지 교육제도에서 습득한 가장 능숙한 표현 도구였으며 영어 사용은 식민 현실과 문화적 전략을 고려한 합리적 선택이었다.

13) 박정경, 「아프리카 영어소설에 나타난 문화충돌-아체베와 옹구기의 초기작을 중심으로」, 『세계문학비교연구』 60, 세계문학비교학회, 2017, 128-129쪽.

14) 하리 가루바(Harry Garuba), 고인환 역, 『정령의 노래』, 아프리카, 2021, 52쪽.

논문에서는 가루바 시학에서 척박한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 온몸으로 저항한 본질적 정체성의 궤적을 짚어본 후 서사화된 장소 상실의 요인을 심층 분석할 것이다.

가루바의 시는 구부정하면서도 올곧으며 짓눌려 있어도 용솟음친다. 내면적이면서도 인간 공동체를 지향하는¹⁵⁾ 그의 작품집 『정령의 노래』에는 식민의 고통에 잠겨 있던 아프리카 공동체의 깊은 영성이 담겨있다. 식민과 이주, 장소 상실로 겪은 통증의 경험을 은유한 작품들로 가득하다. 정신적 공간에는 문학의 공간, 이데올로기의 공간, 꿈의 공간, 정신분석의 공간 등이 있다.¹⁶⁾ 이들 공간은 아무런 의식 없이 지배적인 재현을 우회적으로 왜곡한다.¹⁷⁾ 이를 통해 장소 상실의 경험과 그로 인한 심리적·문화적 고통을 살펴볼 수 있다.

장소는 머무는 곳과 관계된 존재들의 아낌이나 보호와 연결된다. 그의 시 『혀의 집에서』, 『기념비적 소망』, 『이름 짓는 날』, 『살아남은 이름이 없다』 등의 시편에는 잃어버린 장소를 향한 비탄의 씨앗이 현실적 고통과 함께 시적 언어로 녹아 있다. 장소가 사라지면 관계된 존재들과 연결된 끈이 끊어지며, 이는 정체성의 상실을 예고하고 무장소성의 도래를 불가피하게 만든다. 무장소, 비장소, 장소 전치, 장소 착오 등 장소와 관계를 맺을 수 없는 무장소성은 언제나 우리 주변에 존재한다.¹⁸⁾ 관계의 부재, 정체성의 부재, 역사성의 부재는 장소 상실과 무장소, 비장소 현상을 발생시킨다.

가루바는 아프리카인들에게 ‘온화한 거인’으로 기억된다. 80년대 이후 나이지리아의 경기 침체와 불안한 정국 상황은 학문적 업적을 쌓기에는

15) 유정완, 하리 가루바(Harry Garuba), 고인환 역, 『정령의 노래』, 표사.

16) 앙리 르페브르(Henri Lefebvre), 양영란 역, 『공간의 생산』, 에코리브르, 2011, 42쪽.

17) 위의 책, 45쪽.

18) 최병두, 『장소 상실에서 장소 소외로』, 『공간과사회』 33(1), 한국공간환경학회, 2021, 191-191쪽.

한계가 있었다.¹⁹⁾ 그래서 남아공의 정신세계가 반영된 저항 의식과 긍정함은²⁰⁾ 그에게 자신의 연구 업적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매력적인 환경으로 다가왔다. 남아공에서는 유적을 보존하며 역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²¹⁾

1) 근원적 생명의 이름

인간은 장소와 유대하며 살아가지만 장소를 상실하게 되면 정체성이 뿌리 뽑히는 상황을 경험하게 된다. 자기 정체성의 형성지이며 근원인 고향이 사라진다면 자아가 해체된다. 가루바의 시에서 고향은 사라지거나 잊혀진 이미지로 형상화되며, 이는 심리적 안정감을 상실한 자아 해체로 이어진다. 개인이 특정 장소와 맺은 정서적 기억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거나 근원적 치유의 장소로 작용하지만, 기억으로 연결되어 있던 곳을 떠나게 되면서 겪는 심리적 장소 상실은 큰 상처를 남긴다. 아프리카의 어원은 ‘인류가 태어난 고향’이라는 열린 뜻을 가지지만, 불행하게도 아프리카 대륙은 이름값도 하지 못한 채 인간의 수탈 대상으로 전락했다²²⁾. 이로 인해 비서구 문학은 하위 주체로 살아가는 식민의 상처를 풀어낼 수밖에 없는 필연의 상황에 놓여 있다.

식민의 상처를 안은 가루바는 아프리카가 겪은 장소 상실의 통증을 ‘정령’이라는 영적 존재를 통해 영성의 시적 언어로 풀어낸다. 제국주의 폭력에 짓밟힌 아프리카의 영혼을 정령의 언어로 탐구한 것이다. ‘정령’은 상실된 장소의 기억과 영혼의 환기체이며, 장소의 상실 이후에도 내

19) 한건수, 『다민족사회의 종교 갈등과 정체성의 정치-나이지리아의 위험한 깨달음』, 『종교문학연구』 14, 한국종교문화학회, 2010, 124쪽.

20) 안시현, 『조셉 사발탈라의 저항적 미의식 소고』, 『문화와 융합』 39(1), 문화융합연구소, 2017, 55쪽.

21) 김광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지명 변경과 역사의 재맥락화: 새로운 정체성과 역사의식 만들기』, 『한국아프리카학회지』 44, 한국아프리카학회, 2014, 39쪽.

22) 김태형, 『아프리카 대륙의 식민 역사: 프랑스부터 중국까지』, 『한국산학기술』 19(12), 한국산학기술학회, 2018, 542쪽.

면적 정체성이 살아 있는 혼이다. 언어와 노래를 통해 정체성은 재구성될 수 있다. 시인은 정령의 목소리로 무수한 이름들을 목 놓아 부른다. 시인은 신화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본래의 이름을 잊거나 잃은 이들에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관통하는 자신들의 이름을 상기시킨다.

기억을 생생하게 하는 것은 시간이 아니라 공간이다. 추억이 공간화되면 단단한 뿌리로 존재한다.²³⁾ ‘장소감’은 뿌리박힘의 소속감을 제공하는 정체성의 원천이 된다. 여기서 ‘집’은 세계 ‘안’에 존재하는 실존적 거주 장소가 된다. 『정령의 노래』에서는 중요한 거주 장소의 부재, 즉 장소 상실을 언어적 귀환으로 전환하려는 시적 노력이 나타난다. 장소 상실의 폐허 속에서도 자아를 회복하려는 강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름도 없이, 기념비도 없이 / 오직 바람의 영가뿐인 / 지치고 상처 입은 파도와 / 바다의 슬픔 // 땅을 둘러싼 넘실거리는 물로 / 펼쳐진, 바다에서 / 파도는 오래 전 소망한 생명들의 / 울부짖음을 부드럽게 감싸안고 . . . // 한때 숲이 살았던 / 깊은 계곡에서 // 일찍이 노래의 씨가 뿌려졌던 / 해저의 그림자에서 / 영가와 시를 따라 / 울음이 살아난 / 물 위로 태양이 떠오를 때마다 / 파도 위로 달이 춤출 때마다 // 바람의 리듬 속에서 / 달을 춤추게 하는 태양의 노래 속에서 / 그들이 살아난다 // 이야기 속에서 / 상처 입은 몸 곁에 / 다시 또 다시 전해지는 / 시의 기념비 속에서 / 이름들이 살아난다 // 종이 정소리가 되기 전까지는 / 그리고 정소리가 결코 끊이지 않는 노래에 맞춰 울리는, / 영원토록 계속되는 / 북소리가 되기 전까지는(하리 가루바, 『살아남은 이름이 없다』 전문, 고인환 옮김, 2021:112-113).

가루바의 시 『살아남은 이름이 없다』에서 ‘바다’는 상실된 장소의 상징이다. 장소는 실존적 공간의 기본이므로,²⁴⁾ 개인은 장소를 필요로 하

23) 가스통 바슐라르(Gaston Bachelard), 곽광수 역, 『공간의 시학』, 동문선, 2003, 150쪽.

24) 이승나 외2, 『노마디즘 관점의 장소 상실과 생성을 통한 장소되기 잠재성 연구』, 『한국디자인학회 논문집』 15(8), 한국디자인학회, 2020, 302쪽.

고 그 안에서 자신을 확장시키려 한다. 오랜 시간 형성되는 장소 만들기는 애정을 토대로 하며, 개인의 진정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²⁵⁾ 이 시에서는 바다의 극한 슬픔을 이야기한다. ‘바다’에서 이름도 기념비도 없이 상처 입은 파도와 바람의 영가는 사라진 생명과 고통을 나타낸다. 원래 바다는 땅을 둘러싸고 넘실거리는 물로 펼쳐진 생명력이 충만한 곳이었지만, 고향을 빼앗긴 지금은 사라진 이름 앞에서 울부짖을 수밖에 없다. 시인은 노래의 시가 뿌려진 바다 밑 그림자에서 영혼의 노래를 따라 울음이 살아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시적 언어로 정령의 목소리를 빌어 기념비에 묻힌 이름을 호명한다. 그러면 물 위로 태양이 떠오르고 파도 위로 달이 춤출 때마다 그들이 살아난다. 이런 관점에서 시인이 부르는 정령의 노래는 상실된 장소를 언어적 귀환으로 전환하는 시적 장치라 할 수 있다.

종이 징소리가 되고 북소리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래와 춤이 필요한가? 종이 북을 울리고 징소리를 울리기 전까지는 어떤 이름도 불러지 못할 것을 예언하고 있다. 한때 숲이 살았던 깊은 계곡이지만, 지금은 이름을 불러도 대답할 수 없는 정체성 상실의 장소다. 장소 상실은 ‘자기 규정의 상실’이라는 결과를 불러온다. 이 시의 ‘바다’는 이름이 살아나지 못한 채 오직 바람의 영가만 남고 소망했던 생명을 잃게 되는 황량한 공간을 상징한다. 인간의 기억에서 중심이 되는 장소에서 겪었던 과정은 개인적 체험을 넘어 사회적 기억으로 확장된다. 사회적 공간은 서로 침투적이거나 서로 포개지기 때문이다.²⁶⁾ 이 시의 ‘바다’는 빼앗긴 집을 상징 이미지로 형상화한다.

이 나무를 따라서 너의 이름을 짓고 싶다. 널 만들고 싶다 / 물과 흙과 햇빛으로 살아가는 몸 / 너에게 경계를 허물어뜨리는 성체처럼 / 존

25) 에드워드 렐프(Edward Relph), 김덕현 역, 『장소와 장소 상실』, 논형, 2018, 173쪽.

26) 앙리 르페브르(Henri Lefebvre), 앞의 책, 153쪽.

재와 몸을 하나로 묶는 이름을 지어준다 // 하지만 별들은 장난스럽게
 깜빡이고 달은 능글맞게 웃는다. / 하늘의 얼굴을 가로지르는 연필로 그
 린 미소 // 강이 수원(水源)을 버리고 자유롭게 흐를 때 / 다른 몸, 다른
 강들의 손길을 찾으며 / 발바닥처럼, 몸이 앞으로 나아간다 // 이 강을
 따라서 너의 이름을 짓고 싶다, 널 만들고 싶다 / 은총과 번영으로 흐르
 는 바람과 물의 몸 / 너에게 꽃가루들의 춤과 경계를 허물어뜨리는 섹
 스 속에서 / 동식물들이 만나 짝짓기 하는 이름을 지어준다 // 하지만
 별들은 장난스럽게 깜빡이고 달은 능글맞게 웃는다. / 하늘의 얼굴을 가
 로지르는 연필로 그린 미소 // 나무도 강도, 흙도 햇빛도 / 바람도 물도
 너의 이름을 요구할 수 없다 // 너는 어디에나 존재한다. 모든 사물 안
 에: / 나무, 강, 여자, 물, 시.(하리 가루바, 『나무, 강, 여자, 물, 시』 전문,
 고인환 옮김, 2021:83-84).

자연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름은 신성한 생명의 힘을 지닌다. 이름
 속에 숨을 불어넣고 고유한 삶의 모습을 부여하는 초월적인 영역이 존
 재한다. 지금 시적 주체는 나무와 강을 따라 ‘너’의 이름을 짓고 싶다고
 고백하며 자연을 매개로 이름을 부여하는 시적 행위를 수행한다. 물과
 흙과 햇빛으로 살아가는 자연 그대로의 몸에 경계를 허물어뜨리는 영성
 적 이름을 부여하려 한다. 그러나 2연에서 별과 달이 “장난스럽”고 “능
 글맞”게 웃는 모습은 이름 짓기가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시적 주체는
 이러한 어려움에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하늘의 얼굴을 가로지르는
 미소를 그린다.

지금 시적 주체가 원하는 것은 자연 본원의 모습이다. 이는 제국주의
 의 침략이나 폭력이 닿지 않은 아프리카 원형의 공간을 상징한다. 이러
 한 장소는 인간 실존의 중심이자 사랑이 깃든 집이나 고향과 같다. 제국
 주의가 지나가기 전의 은총과 번영으로 흐르던 ‘나무와 강과 물과 여자’
 는 시의 근원적 이름이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평화로운 장소는
 시간의 흐름에 밝혀 허물어지고 뭉그러진 상실의 치욕을 준 것이다. 인
 간이 세계와 맺는 가장 기본적인 장소에는 ‘아낌’의 방식이 존재한다. 장

소들은 서로 끼어들고 간섭하고 재구성되며 층층이 쌓이는 것이다.²⁷⁾ 이 시에서는 원형이 깨지지 않는 곳, 아낌과 배려를 녹여둔 곳, 인간 실존의 중심이 되는 자연 같은 ‘집’과 ‘고향’을 상실한 디아스포라의 상처가 새겨져 있다. 애착과 애정을 불러일으키는 장소는 과거의 장소로써 미래에 대한 기대와 무관하게 존재한다. 자연에 투사하는 시선은 조용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시적 주체는 자연의 원장소와 교감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는다.

그녀는 내 머리를 끌어당겨 왼쪽 귀에 노래했다, / 그리고 몸을 움직여 오른쪽 귀에 그 소리를 다시 읊조렸다 / 이것은 내가 기억할 수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는 정령(精靈)의 노래야, 그녀가 말했다. / 너의 비밀스러운 이름, 신성하고 성스러운, 네 영혼의 윤회유 / 너와 네 몸의 영혼들에게만 알려진, 네가 의식할 수도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는 이름 // 이것은 바람과 물이 네게 속삭일 이름이야 / 나무들이 너를 알아보는 이름, / 달이 밤과 더불어 너를 찾아올 이름 / 별들과 하나 되어 너의 꿈을 깨워 고양시키는 이름 // 해가 뜨면 이것은 너의 그림자, 그늘진 반쪽이 될 거야 / 이것은 너의 내밀한 열정의 침묵 속에 살 거야 // 이것은 네가 떠올리지만 기억하지는 못할 이름. / 네가 의식할 수도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는 노래처럼 너의 심장 박동 속에 머물고 있어(하리 가루바, 『이름 짓는 날』 전문, 고인환 옮김, 2021:12-13).

원풍경으로서의 자연은 결국은 인간이 돌아가야 할 공동체의 장소다. 하지만 비자발적으로 옮겨야 하거나 빼앗기는 장소 상실은 배척과 소외를 감당해야 하는 무거운 짐을 안긴다. 이 시에서 ‘나무와 바람과 물’이라는 ‘자연’은 잃어서는 안 될 아프리카 근원적 장소에 속하며, 지금 그녀가 ‘나’의 귀에 읊조리는 노래는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심장 박동 속에 머무르며 정체성과 기억을 유지하게 한다. 이 정령의 노래는 “내가 기억할 수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는 성스럽고 신성한 영혼의 윤회유

27) 앙리 르페브르(Henri Lefebvre), 위의 책, 155쪽.

다. 바람과 물이 속삭여주는 이름은 장소를 상실해도 정령의 목소리를 통해 언어와 영적 차원의 장소 회복을 추구한다. 하지만 아무리 떠올려도 기억하지 못하는 이름은 정서적 신뢰를 구축한 장소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안겨줄 뿐이다. 어디에나 존재하지만 어디서도 호명할 수 없는 이름은 훼손된 장소에서 부지할 수밖에 없었던 생명의 부담이 얼마나 큰지 짐작하게 한다.

가루바가 시에서 반복적으로 호명하는 ‘이름’은 단순한 언어적 기호가 아니라 존재의 증명이다. 아프리카 전통 사회에서 이름은 개인의 정체성을 넘어 공동체와 조상, 자연과 연결된다. 식민 지배는 이러한 이름을 빼앗고 새로운 이름을 강요하여 존재의 뿌리를 흔들었다. 시인이 ‘살아남은 이름이 없다’고 탄식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존재론적 상실을 의미한다. 정령의 노래는 지워진 이름을 다시 불러 존재를 회복하려는 시도로 단순한 과거의 회귀가 아니라 새로운 정체성을 창조하는 행위이다.

2) 뿌리 뽑힌 정령의 표상 공간

가루바의 『정령의 노래』에서 ‘정령’은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정령은 단순한 영적 존재가 아니라 훼손된 장소와 상실된 정체성을 상징하는 핵심 키워드이다. 『혀의 집에서』, 『기념비적 소망』, 『은밀한 영가: 노예기념비』 등에서 정령은 언어가 상실된 공간의 인간 존재와 기억을 되살리는 매개체로 나타난다. 제국주의적 폭력과 식민 통치로 상실된 언어와 주술, 영가는 ‘알파벳’이라는 규범적 언어 체계에 의해 억압되지만 정령의 노래를 통해 회복을 시도한다. 아프리카인들의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시 속에서 정령은 주인의 자리에서 쫓겨난 장소 상실의 대표적인 표상으로 등장한다. 장소 상실은 존재의 상실, 곧 정체성의 분열을 야기하며, 가르바 시에서 정령은 상실된 장소를 정체성의 토대로 대체하는 역할을 한다.

장소는 친밀한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근원이다. 유한한 인간이 세계에

머문다는 것은 삶의 근본 특성이자, 세계와 사물과 관계를 맺고 사유하는 구체적 실천이다.²⁸⁾ 중요한 장소를 상실하면 형성된 관계가 와해된다. 특히 인간 존재의 근원이 되는 ‘고향’을 상실하면 기억의 원천이 봉쇄된다. 공간은 개별적 가치가 부여될 때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 가루바의 시집에서 드러나는 장소 상실은 단순한 물리적 장소의 붕괴가 아니라 가치 상실과 정체성 해체를 의미한다. 시에는 훼손된 장소 중심인 ‘고향’이 등장하며, ‘무너진 성소’와 ‘이름도 없는 무명의 강’이나 ‘한 마디도 뱌줄 수 없는 숲’이 장소 상실을 표상한다. 이런 장소들은 기억과 정체성의 흔적을 담고 있으며, 이들의 상실은 자기 소외에 내몰린 개인의 입장을 반영하는 정체성 붕괴로 볼 수 있다.²⁹⁾ 시집의 전반부에 자주 등장하는 ‘정령’ 또한 유령화 되어 떠도는 장소의 표상으로 등장한다. 정령이 부르는 노래는 현실에 존재하는 공간이 아닌 상실된 장소의 환영을 소환한다. 가루바는 정령을 통해 주체의 분열이나 언어의 환기 그리고 장소에 대한 기억을 서성이며 회복과 치유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내 혀를 덮고 있는 침묵의 동굴에 저항하며 / 입속 의미의 힘줄은 소리로 자라난다 // 비옥한 토양에서 솟아나는 씨앗이 툭툭 두드리는 소리 같이 / 이것은 모임을 중얼거리며 어둠 속에서 열리는, 말이 된다 // 각각으로 빚어진 슬픔이 풍요로운 언어로, 의미로 펼쳐지면 / 내 혀의 레드 카펫은 성대하게 언어들을 맞이한다 // 알파벳으로 치장한 의미가 혀의 집으로 놀러와 / 주술(呪術)과 영가(靈歌)의 시대를 영면에 들게 하면 // 혀의 신들은 언어의 규칙에 자리를 양보한다 / 영원히 세상을 뒤덮을 알파벳의 휘장 / 하지만... / 주술과 영가의 시대를 매장한 / 알파벳의 껍질을 깨고 활기를 불어넣게 하는 혀의 첫 마디는 무엇인가? // 우리는 언어의 휘장을 찢고 다시 / 풍요로운 주술과 영가의 세계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리 가루바, 『혀의 집에서』 전문, 고인환 옮김, 2021:

28) 마르틴 하이데거(Martin Heidegger), 이기상·신상희·박찬국 역, 『건축함 거주함 사유함』, 『강연과 논문』, 이학사, 2008. 207쪽.

29) 오태영, 『채일조선인 여성의 자기 기획과 장소 상실-유미리의 가족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43,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6, 109쪽.

22-23).

‘집’은 인간 정체의 근본 토대이자 개인이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는 출발점이다. 인간은 집에 거주하는 자이며 집 안에 거주한다는 것은 단순한 존재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³⁰⁾ 위 시의 ‘혀가 사는 집’에서는 언어와 기억이 상실된 공간을 재생하려는 시도가 나타난다. ‘혀의 집’은 단순한 은유가 아니라 나이지리아의 복잡한 언어 현실을 반영하는 구체적 장소다. 나이지리아는 250개 이상의 부족 언어와 500개 이상의 방언이 공존하는 극단적 다언어 사회다. 영국 식민 통치(1914-1960) 이후 영어가 공용어로 지정되었지만 주요 부족 언어 간에도 위계가 존재했다. 특히 가루바가 출생한 남서부 지역은 요루바어가 지배적이었으나 교육과 행정에서는 영어만이 공식 언어로 인정받았다. 이러한 언어 위계는 단순한 의사소통의 문제를 넘어 정치적·경제적 권력과 직결되었다.

그러나 제국주의의 명령으로 강요된 ‘알파벳’은 주술과 영가의 시대를 영면에 들게 하는 장본인이다. 입속 의미의 힘줄은 소리의 힘줄이며 모음을 중얼거리며 어둠 속에서 열리는 말은 주술과 영가의 언어다. 혀는 “비옥한 토양에서 솟아나는 씨앗”이 두드리는 소리 같은 언어를 어둠 속에서 꺼내어 말이 되게 한다. 이 “비옥한 토양”은 나이지리아 토착 언어가 품고 있던 풍요로운 구술 전통과 신화, 주술적 세계관을 상징한다. 가루바가 속한 문화권에서 언어는 조상과 소통하고 신을 부르는 영적 매개체였다. 식민 교육을 받은 지식인들은 토착어로는 ‘주술’과 ‘미신’을, 영어로는 ‘합리’와 ‘문명’을 말해야 했다. 이는 언어의 위계가 곧 세계관의 위계로 고착화되는 과정이었다.

아프리카의 원어들은 억압의 이름 아래 미개와 야만으로 몰린다. 침묵의 동굴과 레드 카펫은 저항의 장치이지만 결국 의미를 상실한 공간이 된다. 아프리카의 숨결이자 정신인 주술과 영가가 알파벳에 눌러 매장되

30) 오토 프리드리히 볼노, 앞의 책, 125쪽.

는 현상은 살아있는 주체성을 상실한 모습을 보여준다. 특히 나이지리아에서는 독립(1960) 이후에도 영어 중심의 언어정책이 지속되었다. 토착어는 공식 영역에서 철저히 배제되었으며 식민 지배가 끝난 후에도 언어적 식민성이 지속되는 전형적 양상이었다. 제국주의의 차별적 시선으로 만들어진 알파벳은 영원히 “세상을 뒤덮”는 “휘장”처럼 필릭이며 아프리카 정신이 살아있는 주술과 영가를 매장하려는 행태를 보인다. 가루바가 영어로 시를 쓸 수밖에 없었던 것도 언어 위계의 산물이다. 역설적이지만 그에게는 영어만이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언어였지만 동시에 주술과 영가의 언어를 ‘침묵의 동굴’ 속에 가두는 일이기도 했다.

장소의 역사는 시간의 역사와 분리되지 않는다.³¹⁾ 기억의 상실은 곧 장소 박탈이며 시인은 이를 되살릴 수 없는 현실을 탄식한다. 시인이 묻는 “혀의 첫 마디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나이지리아의 언어적 딜레마를 응축한다. 그는 “언어의 휘장을 찢고” “풍요로운 주술과 영가의 세계로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물음을 던짐으로써, 나이지리아 지식인이 직면한 언어적·정체성적 분열을 드러낸다. 시인은 알파벳의 껍질을 깨고 활기를 불어넣게 하는 혀의 첫 마디를 회복함으로써 풍요로운 주술과 영가의 세계로 돌아가기를 축원한다. 가루바의 시적 실천은 영어를 사용하되 그 안에 요루바적 구술성, 주술적 상상력, 영가의 리듬을 담아내는 방식이었다. ‘혀의 집’은 파괴된 것이 아니라 변형되었으며 시인은 그 변형된 공간에서 새로운 언어를 모색한 것이다.

바라웁건대 / 변치 않는 구절로 이 시를 쓸 수 있기를 / 시대를 뚫고
공명하는 멜로디로 이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 산 자의 입에 오르내리
는 임종의 말처럼 / 계절마다 찾아오는 비처럼 / 지구의 배꼽에서 으
렁거리는 분노처럼 / 화산과 지진을 잉태하는 태고의 복통처럼 / 슬픔을
말할 수 있기를 // 바라웁건대 / 방언도 표준어도 알지 못하는 고통을
위해 / 세상과 바다를 뒤집어엮는 쓰나미가 될 수 있기를 // 바라웁건대

31) 앙리 르페브르(Henri Lefebvre), 앞의 책, 195쪽.

/ 내 노래에 별을 담을 수 있기를 / 태양이 내 혀 위에 타오르기를 // 지하 감옥에, 결박되어 갇힌, 수천 명의 혀 없는 사람들, / 그들 삶의 이야기를 전하는 피라미드도 기념비적 풍경도, / 없이 / 무덤 속에서 잊혀진 / 소외된 가난한 군중들의 방언으로 말할 수 있기를, // 바라웁건대 / 속박된 울부짖음의 언어가 풀려나기를 / 이 땅을 정화하기 위해 분노의 강이 자유롭게 흐르기를... // 그리고 당신의 사랑만큼이나 영원한 당신의 기념비가 세워지기를.(하리 가루바, 『기념비적 소망』 전문, 고인환 옮김, 2021:61-62).

모든 언어는 모든 담론이 되는 공간 안에 위치한다.³²⁾ 지하 감옥에는 수천 명의 혀 없는 사람들이 결박된 채 갇혀 있다. 무덤 같은 감옥에서 혀 없는 사람들인 노예들의 말은 속박된 울부짖음일 뿐이다. 방언도 표준어도 알지 못하는 소외된 이들의 혀로 “변치 않는 구절”의 시를 쓰고 “시대를 뚫고 공명하는 멜로디”의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러나 그들의 혀는 이미 사라졌으므로 그 혀에서 나오는 노래는 별을 담을 수도 없고 억압의 바다를 뒤집어엎을 힘도 없다. ‘노예’라는 이름으로 인간을 결박한 쓰나미의 바다는 “태고의 복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세상에서 빛을 보지 못한 소외된 노예들의 방언이 지워지는 “무덤”은 자유롭게 흐를 수 없는 침묵의 강이 갇혀 있는 상실의 장소가 된다. 가루바는 비인간적 현실 앞에서 그들의 노래가 별에 담기기를, 그들의 방언으로 선명하게 말할 수 있기를, 속박된 울부짖음의 언어가 풀려날 수 있기를 기념비적 소망 속에 담아낸다. 고통을 직시함으로써 정령의 목소리와 눈빛으로 힘을 구하려는 회복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와 유사한 맥락의 흐름을 보여주는 장시 『은밀한 영가:노예 기념비』에서도 정체성을 상실한 피로 물든 노예의 왜곡된 아픔을 발견할 수 있다.

I / 의미는 오늘밤 내가 갈망하는 모든 것이다 / 동굴 같은 네 입에서

32) 앙리 르페브르(Henri Lefebvre), 위의 책, 214쪽.

/ 내 혀가 찾고 있는 / 배신당한 사랑의 이야기를 위해 // 너는 불우한
 시대에서 태어나 / 낯선 해변에 부딪치는 / 조수처럼 뒤척이고 몸부림치
 며 / 개오지 조개껍질 화폐에 매인 부정한 교환으로, / 시대에 따라 다
 른 이야기를 전해주었다 // 의미는 오늘 밤 내가 갈망하는 모든 것이다
 / 내 노래는 너의 몸속을 유영한다 // II / 비는 구름을 씻어낸다 / 하늘
 의 더러운 빨래를 행군다 / 강가의 돌 위에 옷가지를 두드려 빼는 것처
 럼 / 천둥소리가 경주를 예고한다 / 꿈틀거리며 하늘을 가르는, 번개의
 섬광 // 의미는 오늘밤 내가 갈망하는 모든 것이다 / 나를 인도할 한 무
 리의 마법 / 선지자는 이미지의 폭발 속에서 길을 잃는다 // III / 별들
 로 잘게 쪼개진, 밤의 망토가 / 하늘에서 반짝이는 고대의 것들을 감싼
 다 / 어둠 속 바다의 넝쿨 사이에서 길을 잃은 / 사랑하는 이를 부르는
 목소리 // 피와 골수와 뼈 사이로 흐르는 / 기억이 밤새 메아리친다, 느
 릇느릿 / 표식도 없이, 바다 깊숙이 숨겨진 / 핏빛 노예 무역의 밀물과
 썰물 // IV / 노래의 닳을 달고, 매장되지 못한 영혼의 유골이 누워 있는
 바닷속을 탐사한다. / 영원히 잠들지 않고 그들을 지켜보는 바다 / 장송
 곡이 밀려와 그들을 적시고 영면의 시대로 인도할 때 / 그들은 마침내
 안식을 찾을 것이다 / 찢어진 상처를 감사고, 붉은 영혼을 달래는. / 어
 둠의 시대의 흉터에 의미를 부여하는 노래 // <중략> // VII / 배신 당한
 피의 유령들 사이에서 / 나는 은밀한 영가의 의식을 제안한다, 희망의
 비가를 / “옛날 옛적에”처럼 단순한, 이야기의 노래를 / 매장되지 못하
 고 바닷속에 누워 있는 유골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 의미는 오늘밤
 내가 찾는 모든 것이다. / 안식을 찾지 못한 모든 이들을 위한 영원의
 기념비 속에서 사랑이 부활하길...(하리 가루바, 『은밀한 영가:노예 기념
 비』 부분, 고인환 옮김, 2021:63-67).

아프리카는 고통과 상처의 역사가 버무려진 땅이다. 상실을 상징하는
 장소가 곳곳에 널려 있으며 발을 내딛는 곳마다 고통의 아우성이 터져
 나온다. 상처가 상처를 낳고 그 상처는 더 깊은 상처를 낳지만 누구도
 그 상처를 위로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처 속에는 원형적인 태고의 고통
 이 녹아 있다. 제국주의에 짓밟힌 아프리카는 정신과 언어와 육체를 바
 로 세울 수 없을 만큼 깊은 상처 속에 피로 물든 노예의 삶이 존재한다.

지배하는 것과 전유된 것 사이의 대립은 모순을 낳고 갈등으로 가득 찬 움직임을 낳으며 전유가 극단적으로 축소될 때까지 계속된다.³³⁾ 시인은 자신이 오늘날 갈망하는 의미를 단언하며, 불우한 시대의 이야기가 얼마나 큰 고통 속에 잠겨 있었는지 보여준다.

장소는 기억이 깃든 공간이다. 그 장소에 대한 애착이 끊기면 모든 것이 단절된다. 제국주의가 빼앗은 언어, 문화와 정체성, 소속감 붕괴는 정체성의 혼란뿐 아니라 본질적 정체성 위기로 이어진다. 가루바는 “나는 더 이상 그 땅에 속하지 않지만 내 안의 흙은 아직 그 노래를 기억한다”라고 말하며 빼앗긴 정체성을 정령과 노래를 통해 시적 언어로 바로 세우고자 한다. 장소는 상실되었지만 그 장소에서 일어난 사건과 기억을 부르는 정령의 노래가 새로운 정체성의 뿌리를 세우는 터전이 된다. 장소는 정체성의 근원이 되는 기억이나 언어 그리고 관계의 중심지이기 때문이다.

이 시는 7장까지 이어진 장시로 구성되어 있다. 각 연마다 시인이 갈망하는 의미가 드러나지만, 그 갈망은 이루어지지 못한 채 안타까움으로 남는다. “배신 당한 사랑의 이야기”이거나 “불우한 시대에 태어난 낯선 해변에 부딪치”는 이야기 혹은 “조개껍질 화폐에 매인 부정한 교환”의 이야기가 시인의 노래 속에서 유평한다. 특히 “피와 골수와 뼈 사이로 흐르는 기억”, “매장되지 못한 영혼의 유골”, “무덤 속에서 잊혀진 소외된 가난한 군중”이라는 이미지는 노예무역의 역사뿐 아니라 나이지리아 비아프라 내전(1967-1970)의 집단 학살을 암시한다. 100만 명 이상이 희생된 이 내전은 가루바가 9세에서 12세까지 겪은 트라우마적 경험이었으며, 시에 등장하는 매장되지 못하고 바닷 속에 누워 있는 유골은 적절한 장례조차 치르지 못한 채 사라진 이들의 영혼을 환기한다.

인간이 물질적 환경과 맺는 모든 장소와의 정서적 유대³⁴⁾를 박탈당하

33) 앙리 르페브르(Henri Lefebvre), 위의 책, 260쪽.

34) 에드워드 렐프(Edward Relph), 앞의 책, 6-8, 103-104쪽.

거나 잃으면 정체성 상실을 경험한다. 가루바의 시에서 장소 상실은 단순한 공간 부재가 아니라, 정체성과 기억 그리고 언어를 잃어버린 심리적 상처와 문화적 공간의 붕괴를 의미한다. 『떨어지는 시』³⁵⁾에서 시인은 모든 감각들을 차단하고 귀를 막으며 가슴을 닫고 시를 맞이할 마음의 문까지 닫겠다고 선언한다. 그는 정령과 시적 언어를 통해 정체성 상실을 직시하고 상처 회복과 정체성 재구성의 시적 가능성을 구축하고 있다.

4. 결론

가루바의 시집 『정령의 노래』는 상실과 회복, 정체성과 장소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파헤치는 시학적 실험을 수행한다. 자연과 고향, 그리고 정령의 노래를 통해 공동체 지향적 인간 내면의 고통과 회복 가능성을 실험적 언어로 형상화한다. 정령의 힘을 빌려 영혼을 불러내는 그의 시적 시선은 상실과 재생의 시학을 전개한다. 특히 『정령의 노래』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고향’은 이상화된 과거의 장소이자 제국주의의 폭력으로 훼손된 정체성의 중심으로 기능한다. 하리 가루바는 ‘분노의 강(『기념비적 소망』)³⁶⁾, ‘훼손된 숲(『몸이 노래한다』)³⁷⁾, ‘이방인의 도시(『말, 상처, 흙터』)³⁸⁾ 등 장소 박탈의 현장을 ‘세네갈 물총새의 언어’나 ‘정령의 목소리’ 같은 상징적 언어로 생생하게 재현한다. 그의 시에 드러나는 구술적 특성과 초자연적 요소는 식민 지배로 인한 장소 박탈과 정체성 붕괴, 존재론적 불안을 근원적 언어로 회복하려는 영혼의 목소리이며 고통을 감싸안고 안식을 되찾으려는 몸짓이다.

35) 하리 가루바(Harry Garuba), 고인환 역, 앞의 책, 17쪽.

36) 위의 책, 62쪽.

37) 위의 책, 90쪽.

38) 위의 책, 88쪽.

장소는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관계와 기억과 감정이 축적된 공간으로 인간 정체성의 근원적 기반을 형성한다. 따라서 식민 지배의 박탈로 인한 장소 상실은 정체성 붕괴뿐 아니라 본질적 정체성의 위기를 의미한다. 장소는 삶의 다양한 경험을 담는 공간이자 인간적 의미를 획득한 곳이다. 경험과 감정이 체화된 장소를 잃으면 감정적·정체적 공백이 발생한다. 가루바의 시에서 제국주의적 폭력과 식민 통치는 단순히 물리적 공간을 점유하는 것을 넘어 공간의 의미를 폭력적으로 재편하고 존재적 공백까지 만들어낸다. 『문의 전문가』³⁹⁾에서 “햇대 없는 찌르레기”처럼 집을 잃었다고 고백하는 시적 화자처럼, 고향이나 집을 상실한 존재는 불안, 자아 소외, 기억과 상상력의 공간 소멸까지 경험한다.

그러나 박탈된 장소는 회복 가능하며 새로운 의미와 정체성을 창조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가루바는 인간이 상실한 공간을 시적 언어와 정령의 목소리로 재구성하여 희망을 노래한다. 빼앗긴 공간은 단순한 결핍이 아니라 다시 살아 있는 장소로 전환될 수 있는 회복과 재생의 잠재력을 지닌다. 『정령의 노래』는 식민 지배로 인한 장소 상실이 인간 존재를 위협하는 동시에, 언어와 기억, 상상력을 통해 회복과 재생의 길이 열릴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질적 정체성은 장소에만 고정되지 않는다. 장소의 소멸은 존재의 부정이 아니라 새로운 의미로 나아가기 위한 변형 과정이다. 결국 장소는 언어와 정체성의 또 다른 이름이며, 정령이 거주하는 폐허 속에 남겨진 기억과 자아의 잔존은 바슐라르가 말한 ‘존재의 시학’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르페브르가 말한 것처럼 공간은 사회적 관계와 권력 구조 속에서 생성되고 조작된다.⁴⁰⁾ 『정령의 노래』에서 정령과 시적 언어는 제국주의적 억압 아래 폭력적으로 재편된 사회·정치적 공간을 상징적으로 재생산하며 억압받은 정체성을 회복하는 역할을 한다. 상실된 장소는 인간 공

39) 위의 책, 41쪽.

40) 신승원, 『르페브르의 변증법적 공간 이론과 공간정치—공간의 생산을 중심으로』, 『도시인문학연구』 6권 1호, 한국도시인문학회, 2014, 88쪽.

동체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장으로 거듭나며, 정령이 거주하는 폐허 속 기억은 단순한 상실의 표상을 넘어선다. 시 속 정령은 빼앗긴 장소를 대신하며, 상처 입은 정체성을 기반으로 회복과 재생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박탈된 장소는 새로운 언어와 노래, 시적 주체의 사유를 통해 다시 자리 잡으며,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기억의 터전이 된다.

가루바의 『정령의 노래』가 지닌 문학사적 의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아프리카 구술 전통과 현대 시의 결합을 통해 독창적인 시적 형식을 창조했다. 정령을 매개로 한 구연적 상상력은 식민 언어인 영어를 아프리카적 세계관으로 전유하는 탈식민적 전략이었다. 둘째, 장소 상실이라는 식민 경험을 아프리카 고유의 정신세계를 통해 형상화함으로써 포스트콜로니얼 문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렐프의 근대적 ‘장소 상실’ 개념을 넘어 식민 지배의 구체적 역사성을 담아낸 것이다. 셋째, ‘정령’이라는 비서구적 개념을 통해 서구 중심의 문학 이론에 대한 대안적 시각을 제시했다. 이는 아프리카 문학이 서구 이론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 고유한 이론적 토대를 구축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넷째, 나이지리아의 언어 위계나 내전의 트라우마 같은 특수한 역사적 맥락을 시적 언어로 형상화하여 아프리카 저항시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동시에 드러냈다.

이러한 성취는 가루바를 21세기 아프리카 시문학의 중요한 목소리로 자리매김하게 한다. 가루바의 『정령의 노래』는 장소 상실을 단순한 결핍으로 그리지 않고 빼앗긴 장소의 정체성과 의미를 재구성함으로써 인간 존재가 장소에만 의존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시인은 정령의 목소리와 시적 언어를 통해 폭력과 소외 속에서도 인간의 내적 회복과 생명의 가능성을 노래한다. 이는 포스트콜로니얼리즘 맥락에서 장소와 정체성의 긴밀한 상관관계를 심층적으로 탐구하며, 식민 지배로 인한 장소 상실과 인간 정체성 문제를 논의하는 중요한 성취라 할 수 있다.

다만, 본 연구는 『정령의 노래』 번역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원문이 지닌 언어적 리듬과 문화적 맥락이 완전히 반영되지 못한 한계를 지닌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번역본과 함께 가루바의 첫 시집 『그림자와 꿈 그리고 다른 시들』을 병행 분석하여 공간의 식민화와 장소 박탈의 양상을 보다 심도 있게 탐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나이지리아의 구체적 역사적·정치적 맥락을 더욱 정교하게 분석하여 가루바 시학의 특수성을 규명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1. 기본서

하리 가루바(Harry Garuba), 고인환 옮김, 『정령의 노래』, 아프리카, 2021.

2. 단행본 및 논문

김광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문화적 정체성」, 『한국아프리카학회지』 12, 한국아프리카학회, 2000, 81-144쪽.

———,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지명 변경과 역사의 재맥락화: 새로운 정체성과 역사 의식 만들기」, 『한국아프리카학회지』 44, 한국아프리카학회, 2014, 3-48쪽.

김태형, 「아프리카 대륙의 식민 역사: 프랑스부터 중국까지」, 『한국산학기술』 19(12), 한국산학기술학회, 2018, 541-551쪽.

김윤희, 「변화하는 중국과 아프리카의 경제관계: 나이지리아를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23(4), 한국국제지역학회, 2019, 165-194쪽.

박정경, 「아프리카 영어소설에 나타난 문화충돌-아체베와 응구기의 초기작을 중심으로」, 『세계문학비교연구』 60, 세계문학비교연구학회, 2017, 127-147쪽.

신승원, 「르페브르의 변증법적 공간 이론과 공간정치—공간의 생산을 중심으로」, 『도시인문학연구』 6권 1호, 한국도시인문학회, 2014, 63-98쪽.

심선옥, 「1970년대 제3세계 시문학의 번역과 영향」, 『반교어문연구』 52, 2019, 한양대학교 반교언어문화연구소, 269-315쪽.

안시현, 「조셉 샤발랄라의 저항적 미의식 소고」, 『문화와 융합』 39(1), 문화융합연구소, 2017, 53-82쪽.

- 오테영, 『재일조선인 여성의 자기 기획과 장소 상실-유미리의 가족 이야기
기를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43,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6, 109-134쪽.
- 유정완, 『정령의 노래』, 아프리카, 2021, 표사.
- 이석호, 『아프리카 문학과 탈식민주의 그리고 몇 가지 단상들』, 『문학들』
25, 문학들, 2011.가을, 346-359쪽
- _____, 『영어권 아프리카 작가들의 문학(사) 다시 쓰기와 언어논쟁의
관계-치누아 아체베와 웅구기와 씨웅오를 중심으로』, 『한민족
문화연구』 50(50), 한민족문화연구학회, 2015, 477-502쪽.
- 이승나 외2, 『노마디즘 관점의 장소 상실과 생성을 통한 장소되기 잠재
성 연구』, 『한국디자인협회논문집』 15(8), 한국디자인협회, 2020,
299-312쪽.
- 장용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언어정책과 국가통합』, 『아프리카연구』
19, 아프리카 연구학회, 2005, 99-125쪽.
- 최병두, 『장소 상실에서 장소 소외로』, 『공간과사회』 33(1), 2021, 공간과
사회학회, 183- 232쪽.
- 한건수, 『다민족사회의 종교 갈등과 정체성의 정치-나이지리아의 위험
한 깨달음』, 『종교문학연구』 14, 종교문학연구회, 2010, 111-135
쪽.
- _____, 『분국으로 회귀한 아프리카 이주 노동자의 사회문화적 적응과
정체성에 관한 연구:가나와 나이지리아 노동자를 중심으로』, 『아
프리카학회집』 27, 아프리카학회, 2003, 225-268쪽.
- 허혜정, 『한국 현대문학과 아프리카 문학에 대한 인식 공간』, 『동서비교
문학저널』 20, 동서비교문학학회, 2009, 287-309쪽.

3. 번역서 및 영상자료

- 에드워드 렐프(Edward Relph), 김덕현 역, 『장소와 장소 상실』, 논형,

2018.

가스통 바슐라르(Gaston Bachelard), 곽광수 역, 『공간의 시학』, 동문선,
2003.

앙리 르페브르(Henri Lefebvre), 양영란 역, 『공간의 생산』, 에코리브르,
2011.

마르틴 하이데거(Martin Heidegger), 이기상 · 신상희 · 박찬국 역, 『건축
함 거주함 사유함』, 『강연과 논문』, 이학사, 2008.

오토 프리드리히 볼노(Otto Friedrich Bollnow), 이기숙 역, 『인간과 공
간』, 에코리브르, 2011.

이푸 투안(Yi-Fu Tuan), 구동희, 심승희 역, 『공간과 장소』, 대운, 2007.
최희영 [문학TV], 최희영의 책탐 제8회 : 문학평론가 고명철의 <세계문
학, 그 너머>

[https://www.youtube.com/watch?v=8SuA_0yVWOU&utm_source=ch
atgpt.com](https://www.youtube.com/watch?v=8SuA_0yVWOU&utm_source=chatgpt.com)

<Abstract>

Essential Identity in the Loss of Place in
African Poetics
- Focusing on Harry Garuba's 『Animist Chants
and Memorials』

Bae, Ok-Ju*

This study examines the driving forces of poetic identity in Harry Garuba's (1958 - 2020) poetry collection *Animist Chants and Memorials* by focusing on the theme of loss of place. Remembered among Africans as a "gentle giant," Garuba's poetics engages closely with postcolonialism within non-Western and diasporic literary contexts. His work vividly portrays the journey of reclaiming Africa, a homeland dispossessed by colonialism, and articulates an identity shaped by placelessness and resistance to colonial power. In particular, Garuba's English-language poems function as songs of liberation that awaken the souls sacrificed to imperialism. His poetics conveys the experience of place loss through the oral imagination rooted in African orality. Confronting the paradoxical condition of "life without place" or "place without life," Garuba transforms the injustices of colonial environments into a poetics of metaphor. Therefore, studying place loss in his work is not merely a record of absence but provides crucial insight into the forces shaping African poetic identity. This research aims to illuminate African poetics

* Pukyong National University

through an analysis of oral imagination and the aesthetics of place loss in Garuba's verse.

Key Words: Harry Garuba, Animist Chants and Memorials,
postcolonialism, identity, loss of place

■ 논문접수 : 2025년 11월 25일

■ 심사완료 : 2025년 12월 15일

■ 게재확정 : 2025년 12월 15일